

## 코코는 어떻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나

영화 '코코'의 뒷심이 놀랍다. 개봉 한 달여 만에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돌파하며 '겨울왕국', '인사이드 아웃', '주토피아'에 이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흥행대작 반열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전 세계의 어린이 관객 뿐 아니라 성인 관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코코'의 비밀을 알아보았다.

글 서지연 웹매거진 IZE 기자(apple78910@naver.com) 사진제공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세계인들에게 가슴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며 흥행 질주를 하고 있는 영화 '코코'

### 삶과 죽음, 그리고 가족

'코코'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소년 미구엘은 전설적 뮤지션 에르네스토 델라 크루즈(이하 델라 크루즈)의 기타에 손을 댔다가 저주를 받아 '죽은 자들의 세상'에 들어간다. 이곳에서 미구엘은 가족들에게 음악을 금지시킨 장본인 마마 이멜다를 비롯해 죽은 가족들을 만나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꿈을 꺾으려 하자 의문의 사나이 헥터와 함께 델라 크루즈를 찾아 모험을 떠난다. 미구

엘이 델라 크루즈의 기타 줄을 튕기는 순간, 펼쳐지는 장면은 '코코'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을 보여준다. 태어나고 자란 마을의 익숙한 공동묘지에서 미구엘은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미구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지나치지만 해골이 된 죽은 사람들은 그의 손을 단단하게 붙잡는다. 그들은 자신의 무덤가에서 슬퍼하는 가족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가족들이 선물한 음식을 '죽은 자들의 세상'



'코코'는 뮤지션을 꿈꾸는 소년 미구엘이 죽은 자의 날, 우연히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게 되면서 펼쳐지는 모험을 그린 영화다.



는데, 이는 통상적인 이승과 저승의 이미지를 뒤집어 놓은 것이다. '코코'의 제작진들은 이러한 상상력에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죽은 자들의 세상'을 보다 개성 있게 표현했다. 깊은 밤처럼 캄캄한 '죽은 자들의 세상'에 생기를 더하는 것은 조명이다. 하늘높이 치솟은 첨탑을 알록달록한 네온사인으로 물들이는 것은 물론, '죽은 자들의 세상'과 '산 자들의 세상'을 잇는 금강화 꽃잎 다리는 특수한 조명을 이용해 죽은 자들이 밝을 때마다 빛이 나도록 만들었다. 특히 기억에서 사라지는 죽은 자를 감싸는 황금빛은 아련하고 슬픈 감정을 극대화시킨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코코'에서 인간보다 많이 등장하는 해골 캐릭터다. 수많은 시물레이션을 거쳐 피부, 근육, 코 등 주요 신체 부위가 없는 해골 캐릭터들의 표정을 자연스럽게 만들었고, 해골에 다양한 색과 무늬를 문신처럼 그려 넣어 개성을 부여했다. 또한 산 자들의 세상에서 기억되는 정도에 따라 뼈의 마모가 달라지도록 표현해 거의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헥터의 초라한 모습과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는 델라 크루즈의 화려한 모습이 한층 대비되도록 만들었다.

### 죽음마저 흥겹게 만드는 노래

'코코'의 또 다른 주인공은 음악이다. 이는 디즈니의 유서 깊은 뮤지컬 애니메이션들의 계보를 잇는 것이자, '코코'의 배경인 멕시코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멕시코에는 1년 평균 5000개가 넘는 축제가 있고 광장에서는 언제나 마리아치라는 거리의 악사가 공연을 펼친다. '코코'에서도 미구엘이 광장에서 마리아치의 구두를 닦는 모습이나 마리아치 복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멕시코 사람들에게 음악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빠질 수 없는 것으로, 특히 생일, 성년식 세레나

으로 가져와 자랑하기도 한다. 이는 마치 삶과 죽음을 하나의 연장선에 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비단 '코코'의 배경이 되는 멕시코 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것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예외일 수 없는 죽음을 더없이 긍정적으로 그려내며 산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가족이다. '코코'에서 죽은 사람들이 '산 자들의 세상'에 내려오려면 사진이 필요한데, 사진을 제단에 올리는 것은 남은 가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죽은 가족들의 사진으로 꾸민 제단을 바라보는 것은 곧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코코'가 한국과 중국 등 가족주의 문화를 가진 아시아 국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도 무관하지 않다.

### 죽은 자들의 세상을 만들어내다

'코코'의 배경은 미구엘이 사는 가상의 마을 '산타 세실리아'와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나뉜다. 전자가 지루한 시골에 가깝다면 후자는 고도로 발달한 도시처럼 보이



데, 프러포즈 등을 할 때 꼭 마리아치를 부른다. 그들의 노래는 무척이나 흥겨운데, 가사는 정치 풍자부터 사랑 노래까지 다양하다. '코코'의 음악감독인 마이클 지아치노는 이러한 멕시코의 전통에 기반 해 기타론, 민속 하프, 키보드, 마림바, 수자폰 등 이국적 악기를 이용한 새로운 곡들을 만들어냈다. 특히 '코코'의 메인 테마 곡 'Remember me'는 '겨울왕국'의 'Let it go'를 작곡한 로버트 로페즈와 크리스틴 앤더슨이 작곡했는데, 부르는 캐릭터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델라 크루즈 버전은 슈퍼스타의 콘서트를 연상케 하며 헥터와 코코 버전에서는 그리움을, 미구엘과 마마 코코 버전에서는 애절함을 느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마음을 담은 이 곡은 제 75회 골든 글로브 주제가상 후보로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 호기심을 자극하는 멕시코 문화

'코코'에는 음악을 비롯해 실제 멕시코의 문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요소들이 많다. 제작진은 3년간 멕시코 전역의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코코'에 반영했다. '코코'의 대사에는 스페인어와 영어가 섞여있는데, 이는 멕시코가 1521년부터 1821년까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식민통치를 위해 혼혈정책을 주도했고, 때문에 현재 멕시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은 원주민, 백인, 흑인 등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차지하고 있다.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만난 미구엘의 가족들은 가족임에도 외모가 제각각인데, 이는 한 가족 안에서 다양한 인종적 특징을 보이는 멕시코인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제사와도 비슷해 한국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죽은 자들의 날'은 실존하는 멕시코의 명절이다.



'코코'는 오랜 여운을 주는 음악, 죽은 자들의 세계를 그린 상상력이 담긴 스토리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매년 11월 2일 멕시코 사람들은 금잔화로 꾸며진 제단에 가족들의 사진과 음식, 그들이 생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을 올려놓는다. '죽은 자들의 날'은 경건하면서도 축제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뼈다귀 모양을 붙인 달콤한 빵을 만들거나 고인의 이름이 적힌 해골 사탕을 선물하고, 무덤을 예쁘게 꾸미는 콘테스트를 열기도 한다. 또한 '코코'에서 미구엘을 집요하게 추격하는 마마 이멜다의 고양이 페피타는 멕시코의 전통인 형 알레브리헤를 재해석한 캐릭터다. 여러 동물을 섞어 놓은 듯 한 괴상한 모양으로,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다. 멕시코에서는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인형 중 하나로, '코코'에도 등장하는 프리다 칼로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이 이를 수집하고 그들의 작품에 반영하기도 했다. 멕시코 사람들은 알레브리헤가 나쁜 영혼을 멀리 쫓아내고 집 안에 놓으면 가족을 보호



'코코'는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중 역대 최고의 영상미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다.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코코'에서 알레브리헤 형상을 한 페피타나 단테가 영혼의 안내자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멕시코의 문화와 색채가 반영된 '코코'는 기존의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과도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 디즈니를 뛰어가는 픽사 애니메이션

2006년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한 이후, 디즈니·픽사는 다양한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그중 '코코'는 가장 디즈니의 색깔이 많이 반영된 애니메이션이다. '코코'를 연출한 리 언크리치 감독이 "지금의 우리와 이전 세대를 이어주는 가족의 유대를 탐구해보고 싶었다"고 말할 만큼, '코코'에서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가족 간의 사랑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이것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가장 전통적이고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코코'와 함께 상영되는 단편 애니메이션 '올라프의 겨울왕국 어드벤처'가 특별한 크리스마스 가족 전통이 없는 엘사와 안나를 위해 아렌델 왕국 백성들의 크리스마스 전통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라는 점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디즈니의 단편과 디즈니·픽사의 본편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2006년 디즈니와 픽사는 한 회사가 됐지만, 그동안 디즈니와 디즈니·픽사의 작품은 비교적 뚜렷이 구분되곤 했다. 2015년 디즈니·픽사의 흥행작 '인사이드 아웃'처럼 디즈니와 구분되는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코코'는 다소 예상을 벗어난 작품일 수도 있다. 흥미롭게도 '코코' 다음 디즈니·픽사의 개봉 예정작은 픽사의 대표적 흥행작인 '인크레더블2'와 '토이스토리4'다. '코코'에 만족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일지라도, 디즈니·픽사의 다음 작품을 궁금해 할 이유는 충분하다. ❶